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화요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방금 기도하다가 막 왔거든요. 조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라는 뜻이다.

또 하나 조심하라는 것은 생활 조심, 사람 조심도 있지만, 하나님께 해당되는 일에 조심하라. 하나님을 대할 때, 성령을 대할 때, 주를 대할 때 조심하라. 왜 그런가 하니 근본자 대하니까 사람 대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령을 오해하고 주를 오해하고 대하니까 모르면 제대로 못 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다 해당되요. 두려움과 감격함과 그리고 가치성 있게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니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해요.

기도 시간을 오랫동안 10~20년 하니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니 강도가 달라지더라고. 어렸을 때 사람을 대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을 어린아이같이 대하지만 크면 강도가 달라지잖아. 행하는 강도, 생각하는 강도, 그리고 수준이 달라지죠. 기도 생활 오래하고 또 오래 하나님을 대하고 오랫동안 성령 대하고 많은 사람 대하니까 오랜 연륜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 인격 있게 나이값하며 수준값하며 연륜값하며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섭리사 오면 다르게 대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너는 이제 왔다, 섭리사의 어린아이다 하지만 그분들은 늦게 왔어도 나이가 먹었거든. 세상의 연륜이 있거든. 그 연륜이 있으니까 신앙이 들어가요. 10대, 20대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은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잇값을 못하
더라고. 장년부들은 잘 안 넘어와요. 연륜이 있어서 하도 겪어봐서
어른이 돼도 무더서 자기가 반대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진짜 나빠서 나쁘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섭리는 젊은이 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러나 어른들은 일을 잘 안
저지릅니다.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 그래서 어머니, 할
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조심해라.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하라
고 하고 조심해서 집에 잘 가라고 하고 차조심 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조심을 어떻게 하면 더 하는가 하니 소심으로 하면 돼요. 아침부터
조심하라. 새벽부터 조심하라. 소심하면 큰일나요. 연륜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그래
서 함부로 보면 굉장히 자기 자존심, 자기를 뭉개고 오는 자들을 싫
어합니다. 어른들은 말을 안 해도 조심합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
래서 그런 경험이 신앙이고 경험이 신앙이 됩니다. 나도 기도해서
뭘 받고 이것 보다 경험이 있으니 이렇게 되면 안 되니 그건 천 년
이 지나도 똑같아요. 비오는 날 바위 올라가는 것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닐 때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교
회를 다닐 때도 조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간 됐다고 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말씀 전하러 왔
어요. 왜 안 된다 했는가 하니 깊은 말씀 받고 있는데 하니 때와 시
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 한 때 두 때
반 때에 맞게 한다고 했어요. 3년 6개월 정확히 맞추니까 정확히 시
대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의 근본자이기 때문에 다 맞춰요. 그

래서 빨리 알아서 맞춰라. 더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자고 해서 1978년 6월부터 전하는 역사를 시작했죠. 듣고 오면 풀어져있어요. 나를 풀어주듯이 나도 묶여 있었지. 산에 있었으면 산에서 말씀 받으면서 묶여있었지. 선생님 가는 것은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가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내가 일찍 가는거지. 그 후에 다시 왔을 때 나무가 쪼개 있었는데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기도했다고 알려주고 그랬어요. 시간도 지키면서 조심해서 하자.

이래서 하나님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도 조심해야 할 게 있고, 부모한테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절벽은 조심해야 해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함께 해서 덕을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 헌금도 기본적인 것은 꼭 해야 합니다. 보완해야 할 것은 각자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도 조심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육적인 세계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지만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도 조심하라. 하나님 대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대가를 받고 심판 받는다. 조심하지 않고 대하는 사람들 있죠. 생각하면 수백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는 일.

일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야 해요. 절벽을 오를 때 뱀이 있으면 돌을 던져서 맞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돌이 튕겨서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를 쓰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와 자기가 볼 때가 다르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적이라고만 생각하고 대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해야 해요. 물어보고 허락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해주시죠. 돕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자기와 같지 않아. 기분 좋다. 일사천리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거리를 보면 실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돌과 쇳덩어리보다 무겁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신 없으면 하지마. 그럴 땐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보고 마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꼭 가르쳐줘야겠어요.

조심하라는 것은 잊어버리면 사고 나요. 조심하라는 단어 잊어버리면 죽는다. 조심하라는 단어 잊으면 소심하게 됩니다. 조심 안 하다가 죽는 사람이 각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업 재해, 삶 속의 재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차 조심 안 하니까 차 사고 납니다. 차 사고 하나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봐. 건강 조심하지 않아서 수한보다 일찍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봐.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가 옆에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큰 단어입니다. 스스로가 뭔지 압니까? 그게 꺾이지 않습니다. 쉽게 사는 사람들은 꺾여요. 하지만 스스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스스로 하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시험 문제 써야죠. 자기 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연구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그래서 스스로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투자, 시간의 투자, 그리고 감사의 투자, 그리고 인간관계의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꼭 스스로 해야 해요. 시켜서 하려고 그래.

요즘 월명동에 와서 이거 찾아보라 하면 5시간 걸려도 잘 못 찾습니다. 건달처럼 건성으로 보니 못 찾습니다.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 하나님이 주로 행한 그 맛을 못 느끼더라고. 그 기절초풍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성령님도 강력한 단어를 쓰시는데 기절하면 그 정도까지 충격적인 것을 행한 것을 말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번 너무너무 귀한 거, 평생 못 듣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것을 깨닫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너 나 아직 몰랐어. 제대로 몰랐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건성으로 듣네. 합니다. 운동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구경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돼. 알고 보면 재밌어. 그래도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으로서는 제일 복된 자다. 그 사람이 볼 찰 때 보는거야. 그 정신도 배우고 전법도 배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배우고 해야 해. 너보다 내가 30배, 50배 하니까 엄청나잖아. 그 가치를 알고 배워야 해.

말씀 들을 때도 그런 단어 자체를 못 들어봤다. 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30년, 40년 기도하고 하늘나라에 그 강도를 보는데 정신의 강도, 생각의 강도, 마음의 강도. 얼마나 가치있게 말씀을 보느냐를 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 처음부터 생각, 마음, 정신을 쏟고서 정말 정성스럽게 해나가야 해요.

정말로 가치를 느끼고 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지 대해봤어? 나는 대해봤어. 하나님 대해보고서 인

생은 마치 지구덩어리 같다고 하는구만. 거기까지 깨달았어요. 인생은 하나의 벌레에 불과하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벌레에 불과하다.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서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는 것도 그렇게 가치있게 세우고 행하는 자를 세운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 하나님이 아시거든. 나 봐. 4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잖아. 악착같이 하잖아. 정신의 강도, 생각의 강도, 행실의 강도 이런 것이 강력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사람도 그런 강력한 사랑, 강력한 위함과 섬김 그런 사랑이 아니면 다 깨져요. 이성이 아무리 좋고 해도 이성 관계 하면서도 이혼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강도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받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반응이 있어야 해. 단상에서 말씀 전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저 사람에게 말씀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니까. 생각이 호랑이 같고, 치타 같고, 독수리 같고 이런 생각, 정신, 간절함, 감격함, 고마움, 기쁨, 가치성을 강렬하게 만들 때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렬한 간구, 그것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오래 봐도 강렬함이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예요. 모든 사람 있을 때 음성 들은 걸 전해줬더니 보통 듣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생각에 들어가서 평생 성공하는 사람 많단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는 것.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돼. 이때 열심히 해. 내가 패스할 때 열심히 하고 정신 차려서 해. 보통 해서는 안 돼. 말씀 주면 가치를 깨닫고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

하라. 말씀 잘 들어야 해요. 강렬한 말씀. 조심하라는 말은 너무 많습니다. 조심 안 하면 죽는다니까. 건강에 조심 안 하면 죽는다니까. 조심 안 하면 차에 부딪쳐 죽는다니까. 조심하면서 하라.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섭리사 위해서 하는 일을 정말 도와달라고 그때마다 감격하면서 그걸 두고두고 보면서 얘기하고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30~40년 전에 하셨던 것, 어제 하셨던 것을 잊지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대해주고 너는 그냥 나를 위해 쓰여졌구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한 자를 쓰십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무리 잊으면 죽어도 열심히 스스로 조심해도 알아야 조심해. 배워야 조심하고 알아야 조심해.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깊이 해야 해요. 땅 사는 사람들 그냥 하지 말고 집 짓는 사람들, 집 사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 하나 사업하는 사람들 다 삶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해야 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지구상에 두 번도 없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조심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조심 안 했으면 죽었죠.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니 내가 못 했을 때도 하나님이 돕더라고. 왜? 이번에 도와줄테니 잘해. 요즘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압니까? 조심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 적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매달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조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조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골키퍼 앞에 있는데 생각할 것이 있어? 차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뭘 꿈틀거리. 꿈틀거리다 기회 놓치고 후회하지 마.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자는 소심한 자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더 해주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성령도 그러하시고. 하나씩 조심해서 절대적인 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것만큼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지켜야 해요. 자기 애인이라 생각하고 지켜야 해요.

아하수로왕 때 에스더 지켜줬잖아. 법을 만들어서 지켜줬잖아. 이래서 잔치 때 불렀는데 기분 나쁘지 모르잖아. 기분 나쁠 때 부탁하면 큰일납니다. 말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하고, 알겠어요? 에스더처럼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조심하고 행해야 해요.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해왔지만 반응을 보고 해주십니다. 순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잘 대해줘야 해요. 수단같이 하면 안 되고 평소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고 열심히 행하며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벌써 40분이 지나갔어요. 자, 그러나 강력하게 가르쳐줘야겠어요. 자주 많은 나라들이 강의 듣고 싶어하는데 주일, 수요일, 새벽말씀 들었잖아. 새벽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새벽말씀 간절히 듣고 기도 열심히 했구나. 걱정 마. 새벽예배 안 드리고 기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사라지십니다.

온 세상 누구든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경고판입니다. 경고적인 말입니다. 탐욕한 시대를 조심하라. 코로나 조심하라. 악평자 조심하

라. 악평자 너희도 조심하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 한 마디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10만 명이 없어졌어요. 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에 코로나가 370만 명이 죽고 경제 손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해요.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해요. 여기서 나가면 끝나버려요. 내 입에서 슬쩍 나간 말인데 그대로 행하시더라고. 조심 안 하면 끝이 없어요. 뭐하러 죄짓고 사냐. 그럴 필요가 없지. 간절하게 기뻐하면서 생활에 늘 조심하면서 하라. 조심 하라고 성령께서 단번에 말하면 잘하라는 말이다. 항상 너희도 잘하도록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해서, 지도자 위해서, 교역자 위해서 기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큼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은 생각을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잘하라고.

이 정도 말했으면 조심해야 할 것 알았죠? 조심해서 얻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라는 말은 좋은 말이라니까. 나부터도 책망하고 뭐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할 때는 성질이 대단하다고만 보지 마요. 안 했을 때 죽음을 면했어요.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봐야 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십니다.

수요일 말씀 내가 하니 잘 듣고 생활 속에 말씀 잘 듣고 해야 해요. 성령님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라. 차 사고 조심하면 하나도 안 난다. 조심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해. 집안에 자녀 대할 때도 조심해야 해. 기도하고 해야 해요. 나를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착오가 있을 때도 있죠. 서로 교인들끼리 확인하고 특히 공동 목회자들 하나 돼서 잘하고 장년부, 가정국들 잘 돌아보고 자기 신앙의 자녀들도 잘 챙겨보라고. 지도자들은 외쳐도 할 일이 끝이 없어요.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화딱지 나는 일이 있으니 제자들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한 거예요. 내일모레 죽겠는데 저러니 한 거예요.

설교만 해서 역사 펴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해서 역사 펴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하면서 전쟁을 해야 해. 전체가 다같이 해야 해요. 몇 명만 관리하다가 시간 다 간다니까. 전체를 다 관리해야 해. 하나 살리는데 여러 사람 죽이지 말라고.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해. 알겠습니까? 전군이 일체돼서 움직이고 해야 해요. 그래야 악인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아픈 자, 건강한 자, 열심히 일하는 자, 충성하는 자들 다 기도해주겠습니다.